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집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4월 19일 (제79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가진 것이 없다고?

언젠가 어느 목사가 상담을 왔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이 많아 힘들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다 내가 질문했다. “목사님, 교회 십자가는 있습니까?” “있지요.”, “의자는요?” “그것도 있지요.”, “성도는요?” “아이고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성도가 있으니 목회를 하지요.” 나는 소리를 좀 높였다. “그런데 왜 없다는 소리만 하는 겁니까? 있는 게 더 많은데요? 있는 걸 감사해야지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다. 내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한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경이면서 2대째 거지인 바디매오가 뭘 가졌겠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큰 목청이 있었다. 큰 목소리로 예수를 불러 눈을 떴고,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따르던 신학도가 죽자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다. 남편의 빛이 있는데 그걸 갇지 못하면 아들이 종으로 갈 판이라는 것이다. 그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왕하4:2). 그것을 극대화시켜 그 집의 빛을 다 청산해주었다.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지만 예수를 만난 후 자원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없는 것 같으나 오히려 다 가진 자라고 고백했다(고후6:10). 왜? 예수를 가슴에 품어 오직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품은 자는 다 가진 자다. 그 분이 나의 친구요, 나의 후원자이시다.

자꾸 없다 없다 하면 마귀만 틈탄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6:6).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저녁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셨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교회 안에 부적절한 공간을 만들며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이요, 문제 있는 기업은 사장의 머리가 썩었기 때문이며, 국가의 문제는 최고 통치권자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친구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도, 이웃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무슨 대책이나 다른 노력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장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죽음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22:15)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다른 길, 새로운 길, 살 길이 있음을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 삶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지난 2005년 필리핀 마닐라 케손시티 집회 광경)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문제는 곧 목사가 지식을 버려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곧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라도 자살을 택하는 순간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범죄행위인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살인은 죄를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자살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결코 도피처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해결책일 수 없

택하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마귀의 손아귀를 덥석 잡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에 자살을 택했던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 모두 음부로 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여 유명을 달리해왔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부터 국회의원, 재벌회장, 유명 연예인 등등, 한 통계에 따르면 80여 명의 지도급인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들이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곤두박질쳐버린 자신의 명예를 지킬 길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무지한 철학에서 비롯된다. 죽음 뒤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망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몰라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며 피폐한 삶에 찌들다가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한다. 그것이 권력자가 되었던, 남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재벌회장이 되었던, 많은 인기를 누리며 환호를 받던 연예인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어쩔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오늘도 목사님은 복음을 들고 필리핀으로, 내일은 파나마로 부지런히 전도자의 길을 계속하신다.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지구촌의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춘계산상집회

4월 20일(월) ~ 23일(목)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1:6~10)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담컨대 그런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목사님들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의 일을 하니 확신하게 천국이 예약되어 있지만, 자기처럼 일반 성도는 딱히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없으니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며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려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택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1:4~6).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견대로(엡27:5) 구원 얻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기도 전에 이미 구원 얻을 자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장성들이 전쟁고아들을 많이 입양했습니다. 그 때 누구를 입양하는가는 입양하는 미군 장성 마음대로였습니다. 일을 잘하는 아이나 IQ가 높은 아이를 뽑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군이 입양하고 싶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다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No.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는가 하면, 첫째는 성령을 훼방하는 자요(마12:31~32), 둘째는 한 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한 자요(히6:4~6), 나머지 하나는 짐짓 죄, 곧 고의로 죄를 짓는 자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서 떨어집니다(히10:26~27).

두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해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신종 율법주의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미혹되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헛고생이요 헛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 있는



은 하 나 도 없 습 니 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

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3:20).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롬9:30~32). 이는 언젠가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란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롬4:1~3).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로 인하여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롬10:4).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는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 얻을 자가 누구 이겠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갈2:21).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 이니라"(갈3:11).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수도사들

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았으며, 또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담요도 없이 밖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하는 수도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 더욱 면죄부를 통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수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95개 조문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은총으로(sola gratia),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입니다. 행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이라면 확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14).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천국상급의 출발점이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6~18). 배고픈 형제를 위해 먹을 것을 줘야지요, 혈빛은 이가 있으면 입혀야지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감사함으로 이삭을 드려 믿음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아름다워야 하고, 선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것이 당연한 법입니다(눅6:43).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견대로 이미 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롬8:3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고전15:10)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삶을 통해 구원의 확증을 보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복음은 죄에서 구원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요15:16). 아람과 에서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람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롬9:10~14). 그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 역시 No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요6:65).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자가 그럴 수 있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글로벌 의식의 함양

과학, 특히 정보통신의 놀라운 진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행성 지구를 일개 촌(지구촌)으로 부를 만큼 좁은 생활권으로 만들고 있다. 통신매체가 미비하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순식간에 전달되곤 한다.

일개 가정주부가 멀고먼 그리스라는 나라의 경제상황을 체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믿어지는가? 대체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딘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만 알고 있던 나라, 올림픽 때나 성화채화장면으로 보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국가부도위기에 몰리자 전 유럽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만든다. 그만큼 이제 지구촌 어느 지역의 일들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확장시절, 늘 순수한 혈통의 단일민족임을 자부심처럼 배우고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인 지금 그런 의식은 오히려 국가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말았다.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글로벌 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더 이상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외국인들을 더 이상 낯선 이방인으로 여기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나그네로 들어온 그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외국인이 길을 물으면 부끄러워하거나 피

하는 사람들을 본다. 단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우리와의 동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포용하고 도와줘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다. 남미, 특히 멕시코에 가서 느끼는 바지만, 그들은 비록 영어를 못해도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려 애쓴다. 영어 못한다고 도망가는 일 없다.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이 영어 못한다고 타박을 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을 터, 왜 우리는 자신이 없는 것일까? 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바로 그런 소극적 자세가 외국인들을 더 부시하고 배타하는 행동을 낳는 게 아닐까 한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리라 생각한다. 더구나 그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물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맞춰야할 문제이고, 우리는 다르다고 배타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제 우리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같이, 더불어, 공존해야 하는 시대이다. 역으로 우리도 여러 나라에 나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 주고 받는 것이다. 하나님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다. 이제 지구촌을 한 공동체로 생각하며 더불어 사는 지혜로 시대를 주도해야 할 때이다. .

Henry Han
henry8829@naver.com

봄이 왔어요

부자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동네 아이들이 이 정원에 들어와 뛰어놀다가 거인에게 들켜 호되게 야단쳐서 내쫓겼습니다. 그 후 그곳에는 아주 높은 담장이 생겼습니다.

다음 해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아침에 깨어보니 정원에 따뜻한 햇살과 새소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와 보니 담장 한 쪽에 구멍이 생겨 그 사이로 아이들이 들어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만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거인은 아이들이 봄을 불러 온 것을 알고 커다란 도끼로 담을 모두 부셨고, 아이들이 정원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원은 새싹이 트고, 다시 예쁜 꽃들과 새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을 안아 나무에 올려주는 친절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늘 한 소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처음 봄이 찾아온 그날,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입맞춤으로 녹여주었던 소년입니다. 그 후로 소년은 보이지 않았습니

다. 세월이 흘러 거인이 노인 되었을 때 장성한 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의 손과 발에는 선명한 못 자국이 있습니다. 소년은 이번에는 자신의 정원에 거인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거인은 자신이 가졌던 정원보다 훨씬 아름다운 정원, 천국에 초대되어 가게 됩니다.

봄은 왔건만 마음은 여전히 삭막하고 추운 자들에게 드리는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입니다. 그 소년은 누구일까요?

예수중심편집실



::To Be Succeed::

위기 앞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결사의 각오로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말이다. 이는 초나라 장수 항우가 불과 3만 병력으로 진나라 20만 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일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강이나 바다를 등 뒤에 두고 전투에 임한다는 ‘배수진(背水陣)’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임진왜란 당시 신립 장군이 이끈 탄금대 전투와 같이 실패한 배수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기는 전략 등 또 다른 승리의 요인도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만, 온 힘을 다해 ‘죽기 살기’의 필사각오로 임한다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 영·훈·육에 적용하여 돌아볼 만하다. ‘열심히 하면 망하고, 죽기 살기로 해야 성공한다’는 말처럼 사력을 다하는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굵직한 외국계 기업들을 제치고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이디야(EDIYA)의 문창기 대표는 IMF 외환위기 때 다니던 은행이 무너지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은행원 시절 행장을 목표로 삼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맡은 분야의 다른 담당자보다 배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사람을 귀히 여긴 그는 한권에 백 명의 기록이 빼곡한 노트를 여섯 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한 정신은 2004년, 가망 없이 쓰러져가던 이디야를 인수한 이후에도 여김없이 발휘되어 몇 달을 들어앉아 경제, 경영, 철학, 동서양 고전 등을 망라하는 책읽기에 온몸을 바쳤다. 결국 내부고객 만족이 성공의 마스터키가 됨을 깨달은 그는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았다. 직원들의 여가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생각한 충분한 보너스 제도, 그리고 매달 빠지지 않는 독서 지도까지. 이 모든 것은 마침내 국내 굴지의 커피 프랜차이즈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되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전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그가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 앞뒤 사방이 짙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압박 강가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야곱은 천

사가 환도뼈를 쳐서 뼈가 어긋나도, 새벽녘이 되어 그냥 가려고 해도 죽기 살기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다(창32:13~32).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눅22:39~48), 사도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자신 또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다(골1:29).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정신으로 삼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노력이 결과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수진을 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낸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다. 영적, 혼적, 육적 위기 앞에 배수진을 치자. 온 힘을 다하는 끈질긴 정신으로 묶여있던 사슬을 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자.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최근 한 기독교방송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기획특집을 시리즈로 방영했습니다. 신천지가 주로 젊은 사람들을 노리고 그들의 관심사나 성공공부를 미끼로 접근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세뇌시켜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을 뒤로 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는 신천지에 빠진 자기 자식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부모도 있었고, 어렵게 딸을 이단 상담소에 데려와서 이미 귀와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딸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부모님한테 ‘아줌마, 나한테 이리저리 마세요’, ‘나는 엄마 아빠랑 산 20년보다 신천지에서 있는 6개월이 더 행복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으로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단 상담소에 자신을 데려가려는 부모님을 감금 폭행 등으로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자식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만 합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 피땀 흘려 키우며 애지중지한 자식을 이단 사иб 단체에 빼앗기는 부모의 심정만큼이나, 십자가의 피 값을 주고 산 우리들이 이런 미혹의 영과 세상 권세를 쥔 마귀에게 넘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c@naver.com

꿈이나 돈이나

꿈을 선택하자니 돈이 안 되고 돈을 선택 하자니 꿈이 눈에 밟히고. 많은 청춘들이 꿈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지요. 그런 그들에게 김미경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심플하다. 무조건 돈부터 벌어라.” 이유는 꿈의 성분과 돈의 성분이 똑같기 때문이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도전, 인내, 열정, 성실함이라는 성분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역시 도전, 인내, 열정,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 꿈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내 꿈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돈을 선택하면 꿈을 버리는 거라고, 현실과 타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꿈을 이루는 길과 돈을 버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과자 공장부터 핸드폰 공장, 핸드폰 배터리 공장, 음반가게, 서점까지. 단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고 생각했다면 모든 게 지겨운 단순 노동에 불과했겠지요. 저는 그 일이 뭐든 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면 조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떡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덕분에 같은 시간을 일해도 남보다 더 많은 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사장님들은 제게 직원보다 더 많은 선물과 보너스를 챙겨주셨지요. 한번은 휴학을 하고 음반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비를 받기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들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 사갔던 앨범을 기억해두었다가 다시 오면 그 앨범이 어땠는지 먼저 물어보고 음악 얘기를 꺼내곤 했지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을 그 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뎀 유학을 가고, 어학연수를 가고, 비싼 돈을 들여야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

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외국에 나갈 때 알바를 하고 있는 제가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시간들은 허투루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저에게 성실한 습관을 만들어주고, 사회생활의 스킬,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지요. 외국에서도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소중한 것들요. 혹시 지금 꿈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그 일을 그저 돈 버는 일이라고만 여긴다면 하루하루 꿈과 멀어지는 것같이 느껴질 겁니다. 불평이 쌓여갈 겁니다. 이제 조금만 다르게 그 일을 대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꿈을 위해 실력을 비축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당신으로 변화되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로서 자신을 스스로 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만년에 병으로 고통 받을 때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내 하나님여!” 이 말을 듣고 있던 의사가 놀라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과 같은 철학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그러자 괴로운 표정으로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괴로운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내가 낮게 되면 생각을 바꿀 것이요.” 그러나 그는 회복되고 난후에는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살다가 다시 병석에 눕게 되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한없는 후회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던 한 부자가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 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생명 있을 때 선택해야할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 산 물건은 환불하거나 바꾸면 되고, 직장이나 심지어 결혼의 문제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지만,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바꿀 수도 없고 큰 구렁이 있어 교통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시종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지체하지 말고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복락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고민할 일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노력의 열매는 달다

::Edu Section::

전국적인 고용시장의 한파로 인하여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백수(靑年白手)’라는 신조어는 이제 언론매체에서 쉽게 듣고 볼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계는 너무 잦은 입시교육 정책의 변화로 당연히 갖춰야 할 기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로 인해 심지 있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입시생들은 진지한 노력과 창의성 개발보다는 쉽게 진학할 수 있는 방법만을 찾고 있다. 쉽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쉽고 넓은 길 위에 인생의 진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쉬운 길을 찾아 나선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다시 돌아와

수백만 ‘청년백수’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찾아온 일류대학 출신의 강사들을 면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에게 고3용 교육방송 자료를 건네주면서 내용설명을 주문했더니 80%는 어물거린다. 이유인즉, 수험생 시절에 교육방송 교재를 달달 외우기는 했지만,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력을 쌓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학교 내 신 성적 향상에만 급급했던 암기식 교육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결국 ‘청년백수’의 양산은 겉보기만 번드르르한 스펙위주의 취업 준비와 실력을 무시한 채 성적 관리에만 치중했던 ‘빈수레식’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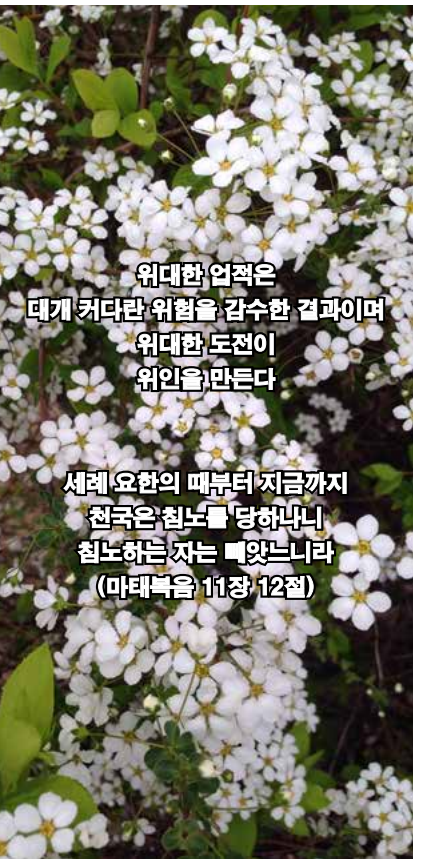
그러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피땀으로 자신의 삶에 매진하는 청년들도 주위에 많이 있다. 병원 전문의로, 대학교수로, 법조인으로, 교사로 자신들의 삶을 반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부지기수임을 기억해야 한다. ‘SWEAT is SWEET’라는 말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미래의 달콤한 인생을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어도 젊은 날의 그 노력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청경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나의 신앙고백

예수님을 영접한지 6개월 된 남편이 “여보,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어디 좀 다녀올게. 근데 그 날이 주일이네.” 하며 가쁜한 음성으로 당연하다는 듯 애기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하여 그 약속은 취소되었지만 주일성수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만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12:8)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짜로 얻은 날이라 하여 주일을 공일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섬겨야 할 주인이 안계시니 산으로 바다로 내 마음껏 사용하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출20:9~11)에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 인즉...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9~11)”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최상의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 쓰고 자녀를 위해 써버리고 남은 찌꺼기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고백이요, 신앙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계시는지요?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며
위대한 도전이
위인을 만든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